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영향

김소희^{ID} · 노윤구^{ID}

창원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Kim, So Hee · Noh, Yoon Goo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Purpose: To identify the effects of spous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Method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75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Gyeongsangnam-do.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3.0. **Results:** (a)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whereas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with spousal support; (b) spousal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spousal support decreases the negativ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Therefore, we ne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spousal support for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Key Words: Acculturation, Social support, Spouse, Immigrants, Parenting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세계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6년 결혼이민자 152,374명 중 여성이 전체의 84.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중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2016년 27.4%를 차지하여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37.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1,2].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와 접촉 하면서 문화적응을 경험하며 정착하게 된다. 특히 결혼을 이유로 출신국의 사회적 관계를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이주국의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특히 자신의 모국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주요어: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배우자, 이민자, 양육

Corresponding author: Noh, Yoon Goo

Department of Nursi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 Changwondaehak-ro, Uichang-gu, Changwon 51140, Korea.
Tel: +82-55-213-3577, Fax: +82-55-213-3579, E-mail: ygnoh@hanmail.net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소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Mar 19, 2018 / Revised: May 27, 2018 / Accepted: Jun 3,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를 경험한다[3].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적응에 대한 사례연구와 이들이 경험하는 모성갈등에 대한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17세로 가장 많고 어린나이에 양육의 부담을 가지며 중국, 필리핀 여성보다 한국어 소통과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4,5]. 또 한국문화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출산 후에도 산후 조리나 자녀양육에 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부모와도 갈등을 경험하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5], 이민자들의 자녀양육은 부모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문화적 경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6].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며[7], 임신여성의 불안과 이주여성의 우울을 심화시키고[8, 9], 하위요인인 죄책감과 문화적 충격은 자녀양육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그러나 문화적응에 대한 갈등이 낮은 경우 양육역량이 향상되고[10-12], 문화적응 정도가 높으면 삶에 대한 만족도 높아지므로[13], 어머니로서의 안정적인 역할과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문화적응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며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14]. 양육자로서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녀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되는 자녀양육효능감[15]은,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고 자녀발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6]. 아동 발달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녀와 부모의 상호작용인데 관계형성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의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17],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양육자로서 어머니역할을 잘해내도록 이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배우자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한 부분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건강 모형에서 사회적 지지는 주요한 사회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매개인자라고 하였다.[18]. 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적고 결혼 후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이 되었으며 우울감을 낮추었고[19], 남편의 협력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심리적 안녕을 악화시킬 때, 우울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였다[7]. 또한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문화적응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여, 문화적응을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결과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0]. 이론적 모형과 일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 지지는 변수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반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가장 측근인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문화적응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배우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녀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에 대한 연구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뤄져 자녀양육효능감의 선행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10,11]. 또한 다문화 관련된 결혼이주여성의 연구는 대부분 출신국가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연구가 대다수였으므로, 각 이주여성의 문화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성공적으로 한국에 적응하고 자녀양육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잘 안착하도록 돕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자녀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자녀양육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자녀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과 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과 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결혼 전 베트남 국적을 가졌으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며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여 연구참여를 동의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 추출 하였다.

대상자의 크기는 G*Power 3.1.2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다중회귀분석 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0.15, 검정력(1-β) .95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160명의 대상자 수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감안하여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였고, 187부가 회수되었으며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5부와 불충분한 응답이 있는 7부(총 12부, 탈락률: 6.4%)를 제외한 175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11문항(연령, 교육수준, 주거지(도시, 농촌), 직업 유무, 한국어 수준, 아이와 사용하는 주요 언어, 가족수입, 결혼기간, 첫아이 연령, 가족구성원, 주상담자), 문화적응 스트레스 30문항, 배우자 지지 12문항, 자녀양육효능감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베트남어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번역된 도구를 베트남어 전문가 2인에게 감수 받은 후 사용하였다.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Sandhu와 Asrabadi [21]가 개발한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를 Kwon [22]이 수정·보완한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차별 6

문항, 향수 및 부적응 10문항, 불안 4문항, 후회 4문항, 분노 4문항, 자녀염려 2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won [22]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였다.

2) 배우자 지지

본 연구에서는 Kim [23]의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보살핌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는 부인이 남편에게 받기를 원하는 물리적, 심리적, 인간관계적, 정보적 도움 등과 관계되는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식 도구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였다.

3) 자녀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24]이 개발한 양육효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도구를 Jin과 Jang [2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도구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 9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 4문항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의 5점까지의 5점 Likert식 도구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Jin과 Jang [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4. 자료수집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G도 다문화지원센터, H군 다문화센터, J시 여성인력개발원, C시 소재의 사회복지관, 매 주 베트남 어 미사가 있는 C시 소재의 성당, C시와 Y시 소재 소아과 병원, S군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회, C시 소재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베트남어 공부방, C시 소재 아시안 마트의 관계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얻었다. 설문조사 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베트남 담당자 3인과 한국거주 10년 이상 된 베트남 여성 2인의 도움을 받았으며 연구자가 동행하였다. 설문문항의 이해를 높이고자 베트남어 전문가 2인에게 감수 받은 베트남어 설문지와 한국어 설문지의 2

개를 준비하였고 대상자가 편리한 설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에는 약 15~2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는 201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창원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승인번호: 104027-201606-HR-007).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유의지에 따라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참여자에게 익명성이 보장되며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열 수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였고,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 폐기할 것이다.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대신 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사례품으로 증정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자녀양육효능감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자녀양육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26]의 3가지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매개변수(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자녀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매개변수(배우자 지지)가 종속변수(자녀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평균 30.30±4.78세로, 26~30세가 69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가 61명(34.9%)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10~12년이 81명(46.8%)으로 가장 높았고, 7~9년이 46명(26.6%) 순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시 지역이 96명(54.9%)으로 더 많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가 98명(56.0%)으로 더 많았다. 한국어 수준은 보통이 99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잘함이 40명(22.9%)이었으며, 못함이 36명(20.6%)이었다. 자녀와 대화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99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59명(33.7%)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98명(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기간은 평균 6.97년으로, 6~10년이 86명(49.1%)으로 가장 많았다. 첫 아이 연령은 평균 6.33세였으며, 7~9세가 51명(29.1%), 4~6세가 46명(26.3%) 순이었다. 가족형태는 시부모, 남편과 자녀가 88명(50.3%)으로 가장 많았고, 남편과 자녀가 77명(44.0%) 순이었으며, 고민 상담자는 남편이 105명(60.0%)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자녀양육효능감의 정도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77±0.69점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항목은 자녀 염려가 3.27±1.20점으로 가장 높았고, 분노 3.06±0.93점, 향수 및 부적응이 3.03±0.69점이었으며, 후회 2.55±0.92점, 차별 2.46±0.83점, 불안 2.30±0.95점이었다. 배우자 지지는 4점 만점에 평균 2.84±0.83점이었으며, 자녀양육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1±0.56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자녀양육효능감 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연령, 최종학력, 자녀와 대화시 주로 사

Table 1. Acculturative Stress, Spouse's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M±SD (Range) | Acculturative stress | | Spouse's support | | PSOC | |
|------------------------------------|-------------------------|-------------|-----------------|----------------------|-------------------------|------------------|-------------------------|-----------|-------------------------|
| | | | | M±SD | t or F (p) [†] | M±SD | t or F (p) [†] | M±SD | t or F (p) [†] |
| Age (year) | 21~25 ^a | 28 (16.0) | 30.30±4.78 | 2.84±0.77 | 3.32 | 3.06±0.70 | 13.42 | 3.42±0.52 | 1.55 |
| | 26~30 ^b | 69 (39.4) | (21~49) | 2.73±0.68 | (.021) | 2.77±0.87 | (<.001) | 3.57±0.56 | (.204) |
| | 31~35 ^c | 61 (34.9) | | 2.73±0.64 | d > b, c | 2.77±0.86 | a > b, c | 3.49±0.57 | |
| | ≥36 ^d | 17 (9.7) | | 3.03±0.73 | | 2.97±0.71 | | 3.48±0.61 | |
| Education (year) | ≤6 ^a | 26 (15.0) | | 3.09±.063 | 2.76 | 2.81±0.80 | 0.29 | 3.35±0.50 | 2.45 |
| | 7~9 ^b | 46 (26.6) | | 2.81±0.67 | (.044) | 2.78±0.83 | (.836) | 3.38±0.58 | (.066) |
| | 10~12 ^c | 81 (46.8) | | 2.66±0.65 | a > c, d | 2.85±0.82 | | 3.60±0.56 | |
| | ≥College ^d | 20 (11.6) | | 2.68±0.86 | | 2.98±0.94 | | 3.62±0.54 | |
| Residence | City | 96 (54.9) | | 2.79±0.67 | 0.23 | 2.74±0.91 | -1.78 | 3.53±0.54 | 0.40 |
| | County | 79 (45.1) | | 2.76±0.71 | (.817) | 2.96±0.71 | (.077) | 3.49±0.58 | (.692) |
| Occupation | Yes | 98 (56.0) | | 2.79±0.62 | 0.32 | 2.78±0.82 | -0.75 | 3.47±0.50 | -0.79 |
| | No | 77 (44.0) | | 2.76±0.74 | (.749) | 2.88±0.84 | (.452) | 3.54±0.61 | (.430) |
| Korean level | Good ^a | 40 (22.9) | | 2.68±0.71 | 2.07 | 3.03±0.73 | 3.21 | 3.61±0.54 | 5.49 |
| | Moderate ^b | 99 (56.6) | | 2.74±0.70 | (.129) | 2.86±0.86 | (.043) | 3.57±0.56 | (.005) |
| | Bad ^c | 36 (20.6) | | 2.97±0.59 | | 2.56±0.79 | a > c | 3.24±0.51 | a, b > c |
| Main language with child | Vietnamese ^a | 17 (9.7) | | 3.17±0.37 | 4.27 | 2.10±0.89 | 9.09 | 3.15±0.40 | 4.43 |
| | Korean ^b | 99 (56.6) | | 2.67±0.72 | (.015) | 2.99±0.76 | (<.001) | 3.58±0.58 | (.013) |
| | Both ^c | 59 (33.7) | | 2.83±0.66 | a > b | 2.80±0.82 | b, c > a | 3.50±0.53 | b, c > a |
| Family monthly income (10,000 won) | < 200 | 38 (21.7) | | 2.84±0.70 | 0.96 | 2.71±0.78 | 0.65 | 3.32±0.50 | 3.04 |
| | 200~300 | 98 (56.0) | | 2.71±0.65 | (.386) | 2.85±0.86 | (.526) | 3.58±0.58 | (.050) |
| | > 300 | 39 (22.3) | | 2.87±0.76 | | 2.92±0.80 | | 3.53±0.53 | b > a |
| Marriage period (year) | 1~5 ^a | 66 (37.7) | 6.97±3.39 | 2.69±0.72 | 0.86 | 2.97±0.78 | 4.55 | 3.52±0.54 | 0.98 |
| | 6~10 ^b | 86 (49.1) | (1~16) | 2.83±0.64 | (.425) | 2.66±0.87 | (.012) | 3.47±0.54 | (.377) |
| | ≥11 ^c | 23 (13.1) | | 2.80±0.74 | | 3.13±0.68 | c > b | 3.65±0.68 | |
| First child age (year) | 1~3 | 45 (25.7) | 6.33±3.49 | 2.68±0.74 | 0.92 | 2.87±0.81 | 0.97 | 3.47±0.57 | 0.87 |
| | 4~6 | 46 (26.3) | (1~16) | 2.72±0.64 | (.433) | 2.83±0.96 | (.411) | 3.49±0.50 | (.460) |
| | 7~9 | 51 (29.1) | | 2.89±0.64 | | 2.70±0.79 | | 3.47±0.54 | |
| | ≥10 | 33 (18.9) | | 2.80±0.74 | | 3.01±0.72 | | 3.65±0.65 | |
| Household | H & C | 77 (44.0) | | 2.78±0.70 | 1.56 | 2.86±0.81 | 0.10 | 3.50±0.55 | 0.04 |
| | H & C & P | 88 (50.3) | | 2.73±0.68 | (.213) | 2.83±0.83 | (.906) | 3.52±0.59 | (.957) |
| | F & N | 10 (5.7) | | 3.13±0.59 | | 2.74±1.01 | | 3.47±0.39 | |
| Consultant | Husband ^a | 105 (60.0) | | 2.67±0.70 | 3.32 | 3.11±0.67 | 13.42 | 3.55±0.57 | 1.55 |
| | Parents ^b | 32 (18.3) | | 3.06±0.62 | (.021) | 2.21±0.82 | (<.001) | 3.40±0.55 | (.204) |
| | F+N ^c | 15 (8.6) | | 2.99±0.47 | b > a | 2.64±0.79 | a > b | 3.31±0.42 | |
| | Others | 23 (13.1) | | 2.72±0.72 | | 2.56±0.96 | | 3.61±0.58 | |
| Total | | 175 (100.0) | | | | | | | |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H & C=husband and children; H & C & P=husband and child and parents-in-law; F & N=friends and neighborhood; [†] Scheffé test.

용하는 언어, 고민상담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36세 이상인 경우가 30세 이하보다 높았고(F=3.32, p=.021), 학력이 6년 이하가 10년 이상보다 높았다(F=2.76, p=.044). 자녀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베트남어인 경우가 한국어인 경우보다 높았으며(F=4.27, p=.015), 고민상담자가 친정부모인 경우가 남편인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3.32, p=.021).

배우자 지지는 연령, 한국어 수준, 자녀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 결혼 기간, 고민상담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21~25세인 경우가 26~35세보다 높았으며(F=13.42, p<.001), 한국어 수준이 잘함이 못함보다 높았다(F=3.21, p=.043). 자녀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 또는 두 가지 언어를 섞

Table 2. Levels of Acculturative Stress, Spouse's Support,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N=175)

| Variables | Categories | Range | Min | Max | M±SD |
|----------------------|----------------------|-------|------|------|-----------|
| Acculturative stress | Discrimination | 1~5 | 1.00 | 4.50 | 2.46±0.83 |
| | H & M | 1~5 | 1.10 | 4.50 | 3.03±0.69 |
| | Anxiety | 1~5 | 1.00 | 5.00 | 2.30±0.95 |
| | Regret | 1~5 | 1.00 | 5.00 | 2.55±0.92 |
| | Anger | 1~5 | 1.00 | 5.00 | 3.06±0.93 |
| | Concern for children | 1~5 | 1.00 | 5.00 | 3.27±1.20 |
| | Total | 1~5 | 1.17 | 4.53 | 2.77±0.69 |
| Spouse's support | | 1~4 | 1.00 | 4.00 | 2.84±0.83 |
| PSOC | | 1~5 | 2.23 | 4.92 | 3.51±0.56 |

H & M=homesickness & maladjustment;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어서 사용인 경우가 베트남어인 경우보다 높았으며($F=9.09$, $p<.001$), 결혼기간이 11년 이상이 6~10년보다 높았으며($F=4.55$, $p=.012$), 고민상담자가 남편인 경우 친정부모인 경우보다 배우자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F=13.42$, $p<.001$).

자녀양육효능감은 한국어 수준, 자녀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월 평균 소득결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수준이 잘함이나 보통이 못함보다 높았고($F=5.49$, $p=.005$). 자녀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 또는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사용이 베트남어인 경우보다 높았으며($F=4.43$, $p=.013$). 월평균소득이 200~300만원이 200만원 미만보다 자녀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04$, $p=.050$)(Table 1).

4. 문화적응 스트레스, 배우자 지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

대상자의 자녀양육효능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이 있었으며($r=-.348$, $p<.001$), 배우자 지지와는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06$, $p<.001$).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고, 배우자 지지가 높으면 자녀양육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녀양육효능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후회($r=-.377$, $p<.001$), 차별($r=-.355$, $p<.001$), 불안($r=-.324$, $p<.001$), 분노($r=-.247$, $p=.001$), 향수 및 부적응($r=-.200$, $p=.008$), 자녀염려($r=-.197$, $p=.009$) 모두 부적 상관관계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후회, 차별, 불안, 분노, 향수 및 부적응, 자녀염려가 낮으면 자녀양육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는 음의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02$, $p<.001$). 이는 배우자 지지가 높으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5. 자녀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자녀양육효능감에 차이를 보인 한국어 수준, 자녀와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월 평균 소득을 가변수로 변환하여 통제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배우자 지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을 가정을 확인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77로 2에 가까워 오차항들 간에 자기상관은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14~3.54로 기준치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5.51$, $p<.001$), 자녀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17.2%였다. 최종모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25$, $p<.001$), 배우자 지지($\beta=.18$, $p<.020$)가 자녀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때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이었으며, 배우자 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양육효능감이 높았다(Table 4).

6.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Baron과 Kenny [26]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매개

Table 3.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N=175)

| Variables | Categories | Acculturative stress | | | | | | | Spouse's support |
|----------------------|----------------------|------------------------------|-----------------------------|------------------------------|------------------------------|-----------------------------|-----------------------------|------------------------------|-----------------------------|
| | | Discrimination | H & M | Anxiety | Regret | Anger | Concern for children | Total | |
| |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r (p) | |
| Acculturative stress | Discrimination | 1 | | | | | | | |
| | H & M | .659 (<i><.001</i>) | 1 | | | | | | |
| | Anxiety | .662 (<i><.001</i>) | .600 (<i><.001</i>) | 1 | | | | | |
| | Regret | .542 (<i><.001</i>) | .647 (<i><.001</i>) | .681 (<i><.001</i>) | 1 | | | | |
| | Anger | .575 (<i><.001</i>) | .565 (<i><.001</i>) | .665 (<i><.001</i>) | .651 (<i><.001</i>) | 1 | | | |
| | Concern for children | .397 (<i><.001</i>) | .384 (<i><.001</i>) | .311 (<i><.001</i>) | .358 (<i><.001</i>) | .377 (<i><.001</i>) | 1 | | |
| | Total | .835 (<i><.001</i>) | .870 (<i><.001</i>) | .826 (<i><.001</i>) | .814 (<i><.001</i>) | .794 (<i><.001</i>) | .533 (<i><.001</i>) | 1 | |
| Spouse's support | | -.342 (<i><.001</i>) | -.236 (.002) | -.200 (.008) | -.316 (<i><.001</i>) | -.206 (.006) | -.078 (.304) | -.302 (<i><.001</i>) | 1 |
| PSOC | | -.355 (<i><.001</i>) | -.200 (.008) | -.324 (<i><.001</i>) | -.377 (<i><.001</i>) | -.247 (.001) | -.197 (.009) | -.348 (<i><.001</i>) | .306 (<i><.001</i>) |

H & M=homesickness & maladjustment;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 Variables | Categories | Step 1 | | Step 2 | | Step 3 | |
|----------------------------|----------------------------|--|-------------|--|---------------------------|---|--------------------------|
| | | β | t (p) | β | t (p) | β | t (p) |
| Korean [†] | Good | .13 | 1.98 (.049) | .16 | 1.67 (.097) | .14 | 1.44 (.152) |
| | Moderate | .11 | 2.14 (.034) | .18 | 1.84 (.067) | .16 | 1.69 (.091) |
| Main language [‡] | Korean | .31 | 2.35 (.020) | .20 | 1.58 (.116) | .13 | 1.02 (.311) |
| | Both Vietnamese and Korean | .25 | 1.98 (.050) | .18 | 1.47 (.144) | .13 | 1.02 (.310) |
| Acculturative stress | | | | -.30 | -4.05 (<i><.001</i>) | -.25 | 3.41 (<i><.001</i>) |
| Spouse's support | | | | .28 | 4.45 (<i><.001</i>) | .18 | 2.35 (.020) |
| | | R ² =.10, Adjusted R ² =.07, F=3.22 (p=.005) | | R ² =.18, Adjusted R ² =.15, F=5.37 (p<.001) | | R ² =.21, Adjusted R ² =.17 F=5.51 (p<.001) | |

Dummy variable=[†] Korean (bad=0); [‡] Main language (vietnamese=0).

변수인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30,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였다($\beta=-.35, p<.001$).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배우자 지지가 자녀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beta=.22, p=.003$). 이때 독립변수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표준화 계수 절대 값은 .35에서

.28로 감소하였으므로 배우자 지지는 부분매개를 하였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녀양육효능감이 감소하는 직접효과를 보였으나, 배우자 지지의 매개를 통하여 그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지지가 부분매개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Sobel test에서도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2.42, p=.015$).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pouse's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N=175)

| Variables | B | SE | β (p) | R ² | Adj. R ² | F (p) | Z (p) |
|--|-------|------|--------------|----------------|---------------------|---------------|--------------|
| Step 1 Acculturative stress → Spouse's support | -0.37 | 0.09 | -.30 (<.001) | .09 | .09 | 17.37 (<.001) | |
| Step 2 Acculturative stress → PSOC | -0.29 | 0.06 | -.35 (<.001) | .12 | .12 | 23.88 (<.001) | -2.42 (.015) |
| Step 3 Acculturative stress → PSOC | -0.23 | 0.06 | -.28 (<.001) | .17 | .16 | 17.05 (<.001) | |
| Spouse's support → PSOC | 0.15 | 0.05 | .22 (.003) | | | | |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논 의

본 연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7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선행연구의 총점을 평균으로 환산한 베트남, 필리핀, 중국국적의 2.98점[19]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태국국적의 2.77점[2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지지는 2.84점(4점 만점)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2.95점[7] 과 2.76점[2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구분으로 시, 군단위로 구분하여 시 지역이 2.74점보다 군 지역 2.96점보다 낮게 나왔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선행연구에서 도시거주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지지가 2.46점이고 농촌거주인 경우 2.19점으로 차이를 보인 것[27]은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지역 간 배우자 지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녀양육효능감은 3.51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3.96~4.17점[11]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효능감이 3.23점[29]과 3.82점(5점 만점으로 환산)[10]인 것으로 볼 때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효능감은 일반적인 결혼이주여성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녀양육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양육효능감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인 것[10,11]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문화권에 적응하는 과정은 변화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문화적 충격, 후회와 죄책감, 차별, 향수, 문화적 충격, 자녀에 대한 염려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결혼을 하면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낯선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도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문화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문화적 충격, 후회와 죄책감, 차별, 향수, 문화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체계적인 지원과 주변의 관심은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출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배우자 지지는 자녀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배우자 지지가 높다고 인지할수록 자녀양육효능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배우자 지지와 유사한 의미인 남편의 협력과 자녀양육효능감이 정적 상관이고[11], 다문화가정의 배우자 지지와 자녀양육효능감이 정적 상관관계[30]인 것은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우자 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한 요소인 배우자 지지는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가깝고 친근한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주요한 사회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신체적 건강유지 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18], 배우자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낯선 문화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배우자 지지가 낮다고 인지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27]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배우자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완충효과로 작용하여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저하된 자존감의 회복을 도와주며, 부부갈등을 조정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며[28], 남편의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우울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따라서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의 모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내의 한국문화 적응을 돕는 다양한 지원적 활동을 한다면 아내는 안정적인 배우자의 지지를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배우자 지지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문화적응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

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배우자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배우자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여 자녀양육효능감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녀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10],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자녀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자녀양육효능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배우자 지지를 통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배우자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력을 낮추는 매개변수로서 완충역할을 하였다. 즉 배우자 지지는 문화적응과정에서 자녀양육효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을 완화시키고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선행연구[7, 20]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와 건강 모형[18]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기능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 인간은 선택과 환경의 변화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효과를 낮추는 매개변수의 긍정적인 작용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인 배우자 지지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신체 정신건강을 돕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익숙하지 못하는 문화에 적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겪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배우자 지지 또는 남편의 협력[11,27], 사회적 지지[5,7,19]와 부정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13],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힘들어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배우자 지지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모국의 문화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한국에서 중국이나 필리핀국적 여성보다 한국어 습득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5]에게 유일한 가족인 배우자의 지지는 낮은 한국생활에서의 안착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주며 자녀의 양육이라는 공동목표를 함께 하는데 다양한 지원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는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돕는 최측근에서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깝고 중요한 지지체계이며 지역사회

의 자원에 대한 높은 이해로 아내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안착을 돕는 프로그램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고 배우자 지지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배우자 지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는 주요한 사회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동하여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사회적 지지와 건강 모형에 근거하여[18] 본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가 긍정적인 매개로 작용하였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효능감에 대한 배우자 지지 이외의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이웃, 친구, 정보제공 행정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의한 자녀양육효능감을 증가시켜 단기적으로는 문화적응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인 자녀양육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여성건강 행정가와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자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의 당당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적응과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배우자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도록 돕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녀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배우자 지지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국적에 따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녀양육효능감, 배우자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양육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ORCID

Kim, So Hee <https://orcid.org/0000-0003-0729-6070>
Noh, Yoon Goo <https://orcid.org/0000-0002-1319-2983>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National indicator statistics: Marriage Immigrant Status in 2017 [Internet]. Seoul: Author; 2017 [cited 2017 December 20]. Available from: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2. Multipurpose Family Support Portal Danuri. Multicultural Family Statistics in 2017 [Internet]. Seoul: Author; 2017 [cited 2017 December 20]. Available from: <https://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89>
3. Berry J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1997;46(1):5-34. <https://doi.org/10.1111/j.1464-0597.1997.tb01087.x>
4. Cha OH, Hong DAG. Case study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adjustment to Korea.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007;16(1):61-73.
5. Cho HH, Park ES, Oh WO. Maternal conflicts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 Nursing*. 2014;44(6):617-629. <https://doi.org/10.4040/jkan.2014.44.6.617>
6. Bornstein MH. Parenting in acculturation: two contemporary research designs and what they tell u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017;15:195-200. <https://doi.org/10.1016/j.copsyc.2017.03.020>
7. Kim MJ.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mental health of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1; 19(3):1-28. <https://doi.org/10.21479/kaft.2011.19.3.1>
8. Preciado A, D'Anna-Hernandez K. Acculturative stress is associated with trajectory of anxiety symptoms during pregnancy in Mexican-American wom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17;48:28-35. <https://doi.org/10.1016/j.janxdis.2016.10.005>
9. Thao NT. Different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family life stress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2016;10(2):225-236.
10. Park SE, Rhee CW.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immigrant women's parenting efficac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2;37(9): 359-384. <https://doi.org/10.16975/kjfsw.2012..38.012>
11. Choe HS.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parenting self-efficacy: focusing on Chinese, Filipinas, and Vietnames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10;48(7): 1-13.
12. Kiang L, Glatz T, Buchanan CM. Acculturation conflict, cultural parenting self-efficacy, and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in Asian American and Latino/a families. *Family Process*. 2017;56(4):943-961.
13. Kim YS. Life satisfac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focusing on family relationship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2;38:229-256. <https://doi.org/10.16975/kjfsw.2012..38.008>
14. Lee SS, Park JS, Kim PS, Kim HS. Marriage and birth form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polic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19-1:1-183.
15. Park CO, Lee EK. A study regarding whit the development of a parental competence enhancement program for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13;17(3):527-547.
16. Kim NH, Baek IK. The effect of child-rearing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ir children's preschool adjustment and social and peer compet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15;19(1):365-384.
17. Lee JY.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and parental stress on children's mal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a control effect of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2;17(2):105-125.
18. Glanz KE, Lewis FME, Rimer BK.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8. p. 189-210.
19. Ha JY, Kim YJ.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4):254-264. <https://doi.org/10.4069/kjwhn.2013.19.4.254>
20. Kang MC, Lee SJ.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steem and parenting efficacy in the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the mediation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2017;6(2):83-108. <https://doi.org/10.20497/jwce.2017.6.2.83>
21. Sandhu DS, Asrabadi BR.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 Psychological Reports. 1994;75(1):435-448.
22. Kwon BS. The effects of Korean ability and self-esteem on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Vietnamese, Filipino, and Chinese Women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9;61(2):5-32. <https://doi.org/10.20970/kasw.2009.61.2.001>
 23. Kim HJ. A study of spousal support, the demand for health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2008;14(1):5-11.
 24. Gibaud-Wallston J, Wandersman LP.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se of Competence (PSOC)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1978 August.
 25. Jin YC, Jang YA.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and China.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13;24(1):99-118. <https://doi.org/10.7856/kjcls.2013.24.1.99>
 26.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6):1173.
 27. Nam IS, Ahn SH. Comparison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nd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0;17(2):99-108. <https://doi.org/10.4069/kjwhn.2011.17.2.99>
 28. Kim SO, Lim HS, Jeong GC. Effects of support from spouse and family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3;13(11):221-234. <https://doi.org/10.5392/JKCA.2013.13.11.221>
 29. Lee KS. Developing a program to improve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s child-rearing behavior and parenting efficacy and verifying the effects of its application [dissertation]. Pochon: DaeJin University; 2015. 123 p.
 30. Park SM. Factors affecting the parenting efficacy of foreign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master's thesi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64 p.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husband's cooperation are factors related to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 What this paper adds?

This study confirmed that spousal suppor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For optimal the sense of parenting compet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practical and individualized strategies are needed to encourage spousal support and decrease the negativ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